

김제경찰서 이창준 순경, '경찰청 BEST 경무인' 선정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 경무과 경무계 이창준 순경이 경찰청 경무업무평가에서 '2025년도 상반기 경찰청 BEST 경무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창준 순경

이창준 순경은 지난해 홍보담당으로 연예인 섭외, 범죄예방 홍보 등(동영상·카드뉴스 직접 제작)발로 뛰면서 정책소통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전 북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경무계 서무로서 내부 직원들 소통과 화합을 위해 힘쓰고, 민원인 주차장 확대·도색, 청사 방호시설 점검 조치 등 선제적으로 업무 발굴을 위해 두발로 뛰었다. 특히 홍보활동을 하며 외국인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경찰을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경찰청 BEST 경무인에 선발되었다.

이창준 순경은 "경찰을 알고,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열심히 한 것뿐인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김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 또한 "김제경찰서 직원이 전국에서 인정하는 BEST 경무인으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단원들의 역량을 높여 더 나은 김제경찰서와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키즈쉐마 친구들 '유기동물 위한 따뜻한 손길'

키즈쉐마어린이집, 정성으로 모든 수건 150장·기부금 30만원 동행 수의사회에 전달

키즈쉐마 가족들이 유기동물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국공립키즈쉐마어린이집은 지난 18일 영·유아 한 명 한 명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수건 150장과 기부금 30만 원을 (사)전북 동행 수의사회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수의사 몇명이 뜻을 함께 하면서 만든 유기견 돕기 기관이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수건 기부 + 삼·~천원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 노은미 원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이상훈 수의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깨끗하게 세탁된 수건을 담은 투명 봉투안에 3,000원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유기동물 사료 구입,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훈 수의사는 "유기견 돕기 캠페인에 함께 해 준 키즈쉐마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생명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키



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은미 원장은 "키즈쉐마 가족 모두의 정성이 모여 작은 생명들이 포근한 잠자리를 갖게 됐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키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양수발전소 등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무주군이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증진교실'을 하반기까지 운영한다. 현재 무주군청,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군 예비군 지역대에서 신청받아 진행 중이며 연중 신청을 받아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자살예방상담사가 함께 방문해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측정과 △우울감 선별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폐활량 측정을 통한 폐 건강 자가 진단, △스마트 및 절주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상담 결과에 따라 금연 클리닉,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건강증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도 운영한다. 치과외사와 치위생사가 함께 방문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을 교육한다.

또한 △개별 구강 상담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담은 구강보건교육, △보철과 임플란트 관리 및 △치주병 예방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북전주농협, 청년조합원방제단과 병해충 공동방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과 청년조합원들로 구성된 전주광역시농협방제단(대표 김영배)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 및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동방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작년부터 비말 구의 발생이 빠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른 시기 공동방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지역 어르신 생명 구한 사례 잇따라

남원시가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온 가운데, 최근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잇따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례 첫 번째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타지에 거주해 홀로 생활하던 분으로,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 3회 생활지원사의 정기적인 인부 확인을 받고 있었으며, 지난 6월 27일 담당 생활지원사 김경숙 씨가 어르신 댁을 방문했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내부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생활지원사는 즉시 관리사무소, 마을 통장,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등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 직접 주변을 확인하며 어르신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끝내 어르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후 자택 내부로 들어가 방 안에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쓰러져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긴급 이송 조치에 나섰다.

당시 유 씨는 어르신이 식사와 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주말임에도 다시 인부 전화를 드렸으며, 통화 중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시 자택을 방문, 더위에 지쳐 힘없이 누워 계신 어르신을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개최

남원시는 지난 18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성친화도시 일자리·안전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 실무협의체는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 일자리 발굴, 창업 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한 공공장소 조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더불어 행복한 교육' 실시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김옥봉)는 지난 17일 군민자치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더불어 행복한 교육'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 50명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이영우 사무처장, 김은숙 사무국장, 장수군협의회 서인애 사무국장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은 읍·면 순회형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전자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한 환경 교육과 천연 재료를 활용한 광채미백크림 만들기 체험이 함께 진행됐다.

환경 교육에서는 다양한 전자 쓰레기의 종류별 분리수거 방법과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광채미백크림 만들기 체험에서는 천연재료를



이용해 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피부에 맞는 미백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며 생활 속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이는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작은 성취감을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23일 사랑의 헌혈행사 진행

남원시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오는 23일, 시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청에 3대, 농업기술센터(오전)와 보건소(오후)에 각각 1대씩 총 4대의 헌혈 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역사회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지속하고 있으며, 헌혈 전 유의사항은 △전날 과음은 피하고 △수면은 최소 4시간 이상 취하고 △27키니 이상 공복 시에는 헌혈이 불가해 식사 후 참여, 참여자에게는 남원사랑상품권(1만 원)과 기념품 제공, 헌혈 후에는 충분한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봉남초서 '아침밥 인식개선 교육'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는 지난 17일 봉남초등학교 교생 전교생을 대상, '아침밥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의 희망인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 먹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직접 아침밥을 만들어보는 체험활동, 아침밥의 이점과 쌀 재배과정을 배우는 이론 교육, 동영상 교육, 용돈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협 김제시지부는 올해 관내 초등학생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아침밥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적십자 자연봉사회, 송천2동 취약계층에 삼계탕 전달

대한적십자사 자연봉사회(회장 채봉덕)는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자, 봉사회 회원 50여 명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800분을 지역 홀로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께 건강한 식사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봉사의 보람을 전했다. 삼계탕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너무 고맙고 힘이 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대한적십자사 자연봉사회 채봉덕 회장은 "작은 정성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천2동(동장 최홍신)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적십자사 자연봉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폭염을 대비해 올 여름철 관내 취약계층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 도동동,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동동은 온열질환 예방과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는 야외활동 자제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 안내, 온열질환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등도 함께 전달했다.

도동동은 노인일자리 활동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철 동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발전협의회, 덕진노인복지관과 나눔 활동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장순식)는 21일 덕진노인복지관(관장 하갑주)과 함께 복지관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발전협의회 회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초복 맞이 건강보양식(닭국) 나눔, 장수 사진 액자 전달, 그리고 지역 홀로 어르신 틀니 지원 후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전주발전협의회 장순식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가장 필요하고 나눔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하갑주 덕진노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